

# 더민주 도당 지역위원장 경선 '관심사'

### 김제부안 김춘진 승리시 최규성 2선 후퇴... 전주를 이상직 전의원·최형재 현 지역위원장 미묘한 신경전

전북 정치권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 경선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경선 결과에 따라서 전북도당 향후 진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집권세를 내주고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도 두 곳에 불과해 관심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무엇보다 도당위원장을 원내에서 추대할 것이라 분위기다보니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도당 위원장직과 관련돼 이렇다 할 의견을 내비치지 않고 있어 현재는 이번 경선결과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원외에서 도당 위원장이 선임되면 이를 중심으로 지역내 주류세력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일단 전주를 보려는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이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

김제부안의 경우 김춘진 전 의원이 지역 위원장에 오를 경우 지난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규성 전 의원의 2선 후퇴는 기정사실화 된다.

김제지역 권리당원이 부안에 비해 200여 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경선이 치러지는데, 어느 쪽이든 힘의 집결을 이루는 쪽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안지역은 김제지역에 비해 투표 인구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서 패배하면 당분간 국회의원 배출은 힘들 것이라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여기에 김중희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



**가습기 특위 현장조사**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회의실에서 인종주 전국석면환경영향평가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

최규성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동원 능력 등 겹치는 부분이 많고 같은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최 전 의원이 지역위원장에 오르면 강력한 견제와 도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자기 진영 사람들을 통해 김춘진

의원을 역선택 하거나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주에는 이상직 전의원과 최형재 현 지역위원장과 미묘한 신경전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위원장 경선 선거인 5,038명 명부가 인쇄된 책자가 유출됐다는 논

란을 겪으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지역위원장 선거는 권리당원 현장투표로 진행된다. 전주시지역위원장 경선은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비전대 미래관 3층에서, 김제·부안은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된다./신광영 기자

## 송지용, 대한태권도협회 감사장 받아

전북도의회 송지용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1)이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이승환)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송 위원장이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것은 평소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14회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국기인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한 태권도원이 우리 지역에 있고,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전북이 태권도의 분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태권도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LG 농업 진출 저지 결의안 통과

전북도의회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농업 진출 반대와 정부의 대기업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농민생존 위협하는 LG의 농업 진출 저지 결의안'이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G CNC는 새만금 산단 1공구 76.2ha에 2016~2022년까지 7년간 3,800억원을 들여 '스마트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이중 50ha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할 계획이다.

LG는 생산물량 전망을 수출해서 기존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작물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의 토마토·파프리카 등 주요 시설원에 생산면적은 포화상태인데다 최근 내수와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국내 시설원에 농가를 붕괴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LG의 대농민 설명회가 성사되도록 주선에 나서고 있는데다 정부여당은 '기업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해 9월 이전에 처리하기로 해서 LG의 농업 진출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LG의 '새만금 스마트 바이오파크' 계획 즉각 철회와 정부의 대기업 옹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임에도 농식품부와 정부는 대기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미 기업들이 FTA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도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삶터마저 빼앗는 비도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최인정, 군산조선소 대안 제시 도지사 확답 받아내

### SK선주사 접촉 · AET사 옵션펀드 참여 · 관공선 등 대체 건조 · 해상풍력 연계 등 주문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현안질문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며 도지사의 확답을 이끌어냈다.

특히,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도가 조성한 '전북경제활성화 펀드'와 '창업지원펀드'를 내세우는 등 방안을 제안했다.

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인정 의원은 하청근로자 산업재해와 관련해 "재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산업재해의 주원인으



로 현장점검 등 도가 재하도급에 대한 집중관리로 이에 따른 피해 발생을 억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인정 의원은 "최근 SK선주사가 LPG선 2대를 울산으로 넘겼는데 선주사가 군산으로 넘기자 하면 군산으로 일감이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송지용 도지사가 선주사를 접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 정상 운영과 물량확보를 위해서라면 선주사를 포함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최인정 의원은 "싱가폴 AET사에서 오는 2017년까지 삼성중공업에 4척, 현대중공업에 4척의 선박을 건조해달

라는 주문을 지난해 10월에 했고, 7월말 최종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도에서 선주사 옵션펀드로 참여해서 군산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송 지사는 "연계가능한 기업을 발굴·투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인정 의원은 3척의 도 관공선과 군산, 고창, 부안에서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도선은 지난 1993년에, 어장정화·운반선은 1996년도에 건조해 선령이 20년 이상 넘어 대체 건조가 필요한 실정을 지적했다.

최인정 의원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각각 93년도와 96년도에 건조된 것으로 나타나 두 선박의 교체시기가 지났다"

면서 "앞서 말씀드린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관공선 건조 발주를 통해 군산조선소에 일감을 줘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이에 송 지사는 "선령 20년 이상 돼 대체 건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군산조선소 협력 업체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인정 의원은 "풍력은 절단·용접·가공·블럭 등 조선소 작업과 상당부분 일치하는데, 현재 4,000억짜리 민간 SP가 대기 중에 있고, 서남해안권 3,600억짜리를 포함해 약 1조원에 달하는 풍력산업 공급이 있다며 해상풍력과의 연계가능성을 속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지사는 "도내 생산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시행자인 한국해상풍력(주)에 요청한 바 있고, 두 산업의 연계가능 사업 발굴을 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광영 기자

## 제윤경, '대부업 규제 3+1법 패키지'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5일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규제 3+1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여전법 개정안'을 통해 대출상품 TV 광고방송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뉴시스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